

# “A4블럭 행정구역 변경 후폭풍 우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 정례회 시정질문

### “삼천3동으로 변경조정시 대방아파트 입주예정자 큰 동요 예상… 재산권 침해 논란 시 입장 밝혀야 시, “고려한 바 없어… 조례 개정해 경계조정 결정”



역이 효자4동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를 다시 삼천동으로 변경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이곳 입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나의 지구에 두개의 동이 존재하게 되어 LH입대아파트 분양자들이 행정구역 단일화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A3블럭을 효자4동으로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전주시는 답변에서 “효천지구 대방아파트를 삼천동으로 편입을 고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며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주민편익과 지역개발, 지역적연결, 역사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되는데, 시는, 이를 토대로 전주시 구,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 의결을 통해 중간 경계조정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송효철 기자

효천지구 A4블럭(대방아파트), A3블럭(LH입대아파트), 단독주택부지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한 지구 내에 2개동이 존재하는 문제와 초등 학교 입학과 관련,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미숙(효자4, 5동·사진)의원은 11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A4블럭의 행정구역을 삼천3동으로 변경 조정한다면 A4블럭 대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큰 동요가 예상

된다”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에서 전주시 행정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 하면서 전주시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에 67만3천제곱미터 부지에 계획인구 1만3천600명의 규모로 4개 블럭으로 나누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효천지구의 A4블럭(대방아파트)의 경우, 도시 개발계획상 행정구

역이 효자4동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를 다시 삼천동으로 변경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이곳 입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 2016년 당시 LH와 전주시의 요청으로 효천지구 행정구역을 해당 지역구의 원동과 조정하여 A1블럭(우미1차), 2블럭(우미2차), A4블럭(대방)은 효자4동, A3블럭(LH입대)과 단독주택부지는 삼천3동으로 협의 결정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미숙 의원은 “삼천3동 구역 블럭에 건축되는 A3블럭 LH입대 아파트의 경우, 효자4동이 아니어서 이곳 입주자들의 효천초등학교 입학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또한,

##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전주시 덕진구가 시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덕진구는 11일 금암노인복지관과 무료급식소를 방문하여 각종 복지지원제도를 홍보하고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을 했다.

이날 상담은 기초수급, 의료지원, 긴급복지 등 분야별 전문상담직원이 100여명의 어르신에게 복지공급증을 해소해 주는 시간이었으며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기초초거급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에 따르면, 현장에서 미완료된 상담은 해당 사업담당 및 부서에 연계, 피드백을 하고 향후 시민 다중방문시설이나 병원 등 복지 필요대상이 밀집한 장소를 찾아 주민 밀착형 행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11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사회복지인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신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모습.

## ‘포용적 복지시대의 커뮤니티 케어’

### 전주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성료… 유공자 표창장 수여

전주시는 11일 덕진예술회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이병관 전복지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사회복지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사회복지인 한마음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포용적 복지시대의 커뮤니티 케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주시와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을 기념해 관련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

심을 높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1부 기념식에는 사회복지 증진과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를 해 온 사회복지자 유공자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을 함께 낭독했다.

2부 사회복지인 한마음대회에서는 초청가수 박강수와 팝페라 그룹 TNB 공연, 경품 추첨 등으로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서로 격려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정석 전주시 사회

복지협의회장은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전주시 전체 300여개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사회복지공무원 등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복지인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과 지혜를 한데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지난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9월 7일로 정했으며, 전주시는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송효철 기자

## ‘맛있는 유머로 멋있게 소통하자’…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 방우정 MC리더스 대표 초청

제182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11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방우정의 맛있는 유머 화법’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는 김제동의 스승이자 이벤트MC계의 대부로 불리는 방우정 MC리더스 대표가 강사로 나서 유머와 인생의 지혜를 가미한 소통의 노하우를 풀어냈다.

이날 강좌에서 방 대표는 “유머 있는 사람은 단순히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공감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한 뒤, △인맥을 형성하기 위한 진도표 △한 번에 기억시키는 자기소개 방법 △칭찬을 3분 안에 집중시키는 3단화법 등을 실제 대화 예시를 통해 소개했다.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화법의 기술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문화공연으로 전주 민들린 앙상블 공연팀의 연주가 펼쳐지고 강좌 후 토크 시간에는 강사와 수강생과의 토크(talk talk) 소통의 시간도 이어졌다.

박재철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전주 열린시민강좌를 통해 시민들의 평생 학습 욕구에 적극 부응하여 다양한 계층과 연령을 아우르는 강의로 시민들이 풍성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열린시민강좌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주 시청 강당에서 열리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다음 강좌는 오는 10월 2일 더공감 마음학교 대표인 박상미 강사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감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강좌가 있을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우리 농산물 애용 가두캠페인

전북농협은 11일 전주 신시가지 인근에서 범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 애용 호소와 통합정사 알리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추석을 맞이하여 전북의 우수한 농축산물의 판매 증대를 위해 임직원들의 참여했다.

통합정사의 각 계열사가 함께 행사에 참여, 신시가지에 위치한 통합정사 알리기에도 힘썼다. /김영태 기자

## 시민들의 추억 담긴 축제 기록물 찾아오

### 풍납제·단오 등 수집 전주시, 오늘부터 31일까지 기록물 수집공모전 개최

전주시가 시민들의 추억 속에 담긴 축제와 행사, 놀이와 관련된 기록물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주, 축제의 기록 - 당신의 기억 속 전주의 축제를 찾습니다’를 주제로 ‘제5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집 대상 기록물은 전주를 중심으로 진행된 축제, 행사, 놀이 관련 자료와 ‘전주’와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근현대 자료이다.

수집 기록물 유형은 사진과 동영상 등의 시청각류, 족보와 일기 등 문서류, 박물관(생활용품, 기념품), 기타박물관까지 다양하며 특히, △전주시민의 날 △풍납제(민속난장 포함) △한국의 3대 명절 ‘단오’ 등 시민 행사 기록물을 수집한다.

또,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소리축제,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 등 축제 관련 초기 자료와 지금은 사라진 꽃상여 축제와 석전놀이(돌싸움) 및 마을 대표 축제 전주기잡놀이, 정월대보름놀

이 자료 등을 모을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 응모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단 심사를 통해 ‘축제’ 부문 대상(꽃상삼) 1명과 ‘전주’ 부문에 특별상 1명을 포함한 입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phm0507@korea.kr)로 접수하거나, 전주시 총무과(063-281-2268, 5087)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주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발굴해 소중한 기록 자산으로 보존하는 전주 정신의숲(전주 기록물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의 상징(미원탑, 전주역)’, ‘전주의 생활(시장, 마을)’ 등 세부 주제를 선정해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추진, 전주 관련 역사 콘텐츠를 연차적으로 수집해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기록의 힘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데 있다”며 “전주라는 도시의 기록이 담긴 다양한 기록물을 기증해준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전주의 인문학적 자산이 더욱 풍성해져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가을 진드기매개 감염병 주의

### 전주시보건소, 성묘·벌초·등산시 물리지 않아야 야외활동 후 입었던 옷 세탁·샤워 등 실시해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성묘와 벌초 등 야외활동에 나서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보건소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해 성묘나 벌초, 등산과 텃밭 가꾸기,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많아 당분간 찌르거나 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같은 진드기매개 감염병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찌르거나 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가을철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야외활동 후 고열, 두통 등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가피(검은 딱지)가 형성된다.

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가을철(9월~10월)에 환자가 증가하고, 야외활동 후 고열은 물론 구토, 설사, 복통 등 소화기증상이 나타난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전에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긴옷, 모자, 토시,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야외활동 후에는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옷차림을 깨끗이 하고 야외활동 시 사용한 옷차림은 세척해 햇볕에 말려야 한다. 또,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 목욕을 실시하고, 머리카락과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송효철 시 보건소장은 “가을철에는 등산과 텃밭 가꾸기 등의 야외활동이 늘고, 특히 추석 전후에는 벌초나 성묘로 인해 풀이 많은 곳에서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조기에 치료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 전라도 천년 청소년 문화대탐험

### 전북문화관광재단, 70여명 대상 오늘부터 3일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전국 70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3개 시·도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전라도 천년 청소년 문화대탐험 2’회차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탐방지로 ▲ 1일(12일)은 해남 명랑대첩지, 이순신 유적지 등이며, ▲ 2일(13일)은 광주 비엔날레와 백범기념관, 그리고 전주의 경기전, 승강재를 탐방하고 전북브랜드공인 ‘홍도’를 관람한다. ▲ 3일(14일)은 익산 머루사지와 교도소세트장을 탐방하게 된다.

탐험단은 여행지마다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실시간으로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탐험 후에도 탐험 후기를 게시해

전라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관광팀 한민규 팀장은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전라도 방문을 유도하고, 청소년 시각에서 숨겨진 자원과 관광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한 전라도를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도 천년 청소년 문화대탐험 1’회 차는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전주, 군산, 광주, 담양, 순천 중심으로 50여 명의 1기 탐험단이 활동했고, SNS 활동으로 페이스북 탐험 후기가 3,557명에게 도달했으며, 탐험 및 홍보영상 조회 수는 832회를 기록했다. /송효철 기자